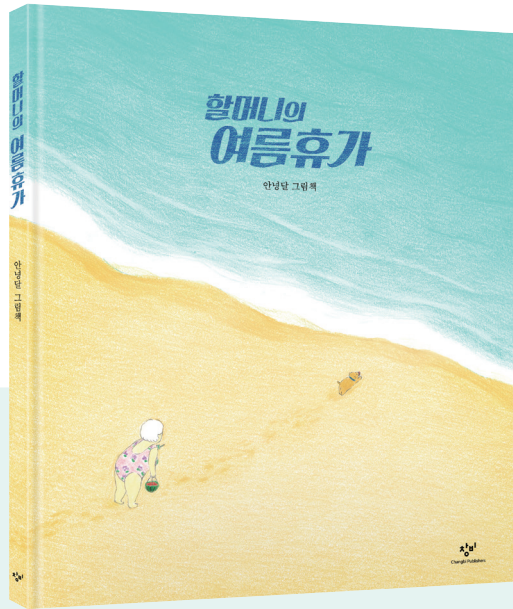


자연 탐구

어느 날, 할머니에게 찾아온 뜻밖의 여름휴가
한여름을 시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상상력



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그림책 | 창비 2016

어느 여름날,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벌어진 마법 같은 사건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손자에게 바닷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선물 받은 할머니는 고장 난 선풍기를 들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강아지 메리와 함께 소라 속으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넓고 푸른 물결, 짹짹하게 내리쬐이는 햇볕, 고운 모래사장 등 무더위를 잊게 할 만큼 청량감 가득한 바닷가가 펼쳐진다. 할머니가 갈매기와 수박을 나누어 먹고, 모래 위에서 바다표범과 뒹굴며 햇볕에 살을 태우는 모습은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동시에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긴다. 따뜻한 상상력으로 혼자된 할머니의 정서를 어루만지며, 소외된 이들에게 시원한 여름휴가를 선물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다른 그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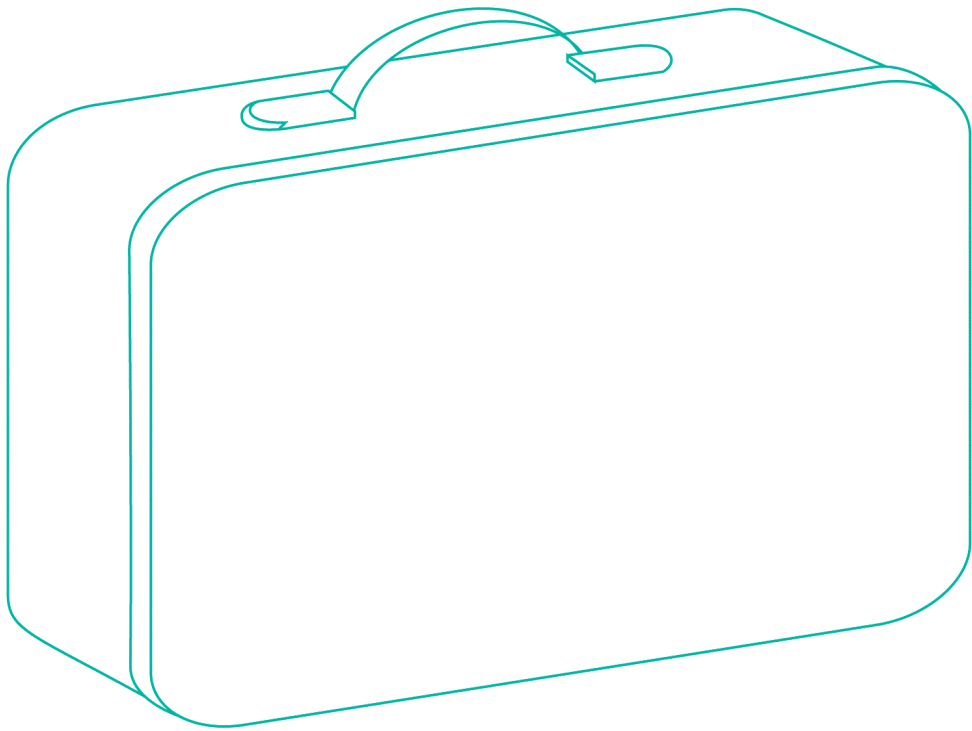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는지 상상해 봅시다.





나만의 여름휴가

여러분이 여름휴가를 떠나게 된다면 무엇을 챙기고 싶은가요?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그리고 이유를 써 보세요.



물건	
이유	